

코스피, 미국·중국발 리스크에 4000선 이탈

2.24% 급락…AI 회의론·중국 경기둔화 우려

외국인 1조 순매도 주도…코스닥도 2.42% ↓

AI 산업 버블 우려와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경제심리에 더해 중국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밀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46p(2.24%) 급락한 3999.13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2.73p(0.07%) 오른 4093.32로 개장한 직후 하락 반전했으며, 오후 3시께에는 4000선이 깨지면서 한때 3996.23까지 내리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34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기관도 2213억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홀로 1조2503억원을 순매수하며 저가매수에 나섰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약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16%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0.59% 내린 채 장을 마쳤다.

시장이 AI 산업에 대한 회의감을 떨쳐 내지 못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우위를 점했고, 이번 주 잇따라 발표될 미국 실

물지표 발표 역시 시장의 관망세를 짙게 만들었다.

전날 발표된 중국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지표가 예상을 밑돈 가운데 부동산 시장 위기와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된 것도 아시아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이밖에 미중 패권경쟁이 무역을 넘어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는 양상과 미국이 무역협약의 이행 속도가 늦어짐 영국과 AI 등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도 약세로 작용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개장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1.91% 내린 10만2800원에, SK하이닉스는 4.33% 급락한 53만원에 장을 마쳤다.

여타 시가총액 상위주도 삼성바이오로직스(1.02%)를 제외한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5.54%), HD현대중공업(-4.90%), SK스케어(-3.93%), 한화에너지스페이스(-3.63%), 기아(-2.58%), 현대차(-2.56%)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72p(2.42%) 내린 916.11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0.60p(0.06%) 내린 938.23으로 개장한 이후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595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기관은 67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074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6조4509억원과 13조 1186억원이었다.

연합뉴스

광주 콘텐츠·게임산업 육성 국비 추가 확보

성과급 8억5000만원…지역특화콘텐츠사업 2년 연속 우수

지역게임산업 육성 평가서도 그룹별 1위…국비 1억 받아

광주시가 지역 콘텐츠 상품화와 게임산업 육성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성과급(인센티브) 8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광주시는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아 2026년도 국비 성과급 7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

며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 창출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지역 콘텐츠 지식재산(IP) 기반 관광 융합 상품 개발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가맹 협력체계 구축 △지역 콘텐츠 유통 협업 파트너 구성 △지역 콘텐츠 IP 활용 팬상품(굿즈) 제작 △거점 연계 유통 지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급 확보로 광주시는 내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총 3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국비 12억원과 시비 12억원에 성과급 7억 5000만원이 더해진 규모다. 광주시는 이 예산을 활용해 △AI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관광 융합 상품 운영 지원 △인기 콘텐츠 협업(콜라보) 상품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도 그룹별 평가 1위를 차지해 국비 성과급 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광주글로벌게임센터가 게임 기획부터 제작, 출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운영한 성과로 풀이된다. 광주글로벌게임센터는 2016년 개소 이후 △인디게임 발굴 △게임 제작 지원 △인디게임 상담지도(멘토링) △글로벌 게임전시회 참가 지원 △게임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해 ‘광주형 게임 산업 생태계 모델’을 구축해 왔다.

시는 내년도 총 20억5000만원(국비 10억5000만원, 시비 9억원, 성과급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게임산업 거점 운영을 강화하고, 게임 융합 제작자(게임 사운드 크리에이터) 지원 등 지역 게임산업 육성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신화 광주시 콘텐츠산업과장은 “광주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내용
매일 일정액을 부담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할 수 있는 정액권 기능을 K-패스에 추가

일반 (40~64세)		청년(19~39세) 어르신(65세 이상) 2자녀 부모		저소득 3자녀 부모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형	플러스형
5.5만원	9.5만원	5만원	8.5만원	4만원	7.5만원

대중교통 많이 탈수록 혜택 커진다

광주시, ‘G패스’-‘모두의카드’ 통합 환급체계 운영

‘광주 지(G)-패스’ 이용자들은 내년 1월부터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광주시는 정부가 도입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광주 G-패스’ 이용 시민에게 두 제도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환급체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K-패스가 일자를 대상으로, 한 달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환급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정액형 제도인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사실상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이에 맞춰 ‘광주 G-패스’와

‘모두의 카드’를 연동해 시민이 별도의 선택이나 추가 신청 없이도 월별 이용 실적에 따라 더 큰 환급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시민이 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스템이 한 달간의 총 이용금액을 산정해 ‘광주 G-패스’와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더 큰 제도를 자동 적용한다.

광주지역 환급기준액은 일반형의 경우 월 4만~5만5000원, 플러스형은 7만5000~9만5000원이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환승 포함) 3000원 미만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GTX 등 광역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다만 KTX, 항공, 고속버스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수협중앙회, 전남 저소득 어업인에 생필품 공동지원

목포수협서 ‘사랑海 온정나눔’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연말연시를 맞아 16일 목포수협에서 지역 저소득 어업인에 생필품을 공동 지원하는 ‘사랑海 온정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수온 및 적조 피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는 최영동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부장, 류수중 Sh수협은행 전남지역금 융본부장,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품을 전달하고, 어업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16일 목포수협에서 지역 저소득 어업인에 생필품을 공동 지원하는 ‘사랑海 온정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반도체 호황에 작년 기업 순이익 20.6% 급증

■국가데이터처, 2024년 기업활동조사 결과

182조 3년만에 반등…총매출 3371조 5.2% ↑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이익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4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조사대상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총매출액은 3371조1000억원으로 전년(3203조8000억원)보다 5.2% 늘었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업(23.3%), 운수·창고업(16.8%), 숙박·음식점업(13.3%) 등에서 증가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81조9000억원으로 20.6% 뛰었다. 2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했다.

연간개발비(금융보험업 제외)는 97조

1000억원으로 전년(80조원) 대비 21.4% 늘었다. 제조업 연구개발비가 88조9000억원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증가율은 21.2%였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19년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은 매출액이 훨씬 많았다. 이런 경우 기업당 매출액이 8404억원으로, 조사대상 전체 기업당 매출액의 3.6배 수준이었다.

매출·순이익과 연구개발비 증가는 지난해 인공지능(AI) 붐에 따라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반도체 산업이 주도한 것으로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이년 조사 대상 기업은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1만 4922개 기업체다. 전년 대비 조사 대상은 2.6% 증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회사는 1만6967개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국외 자회사는 1만137개로 0.6% 늘었다.

국외 진출지역은 아시아가 6479개(63.9%)로 제일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 2217개(21.9%), 미국 1663개(16.4%), 베트남 1192개(11.8%) 순이다.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은 3398개로 28.1% 증가했다. 관련 기술 비중은 클라우드(23.5%), AI(18.7%), 빅데이터(16.5%), 사물인터넷(13.6%) 순이었다.

지난해 신규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401개로, 이 중 제조업이 54.9%로 절반이 넘었다. 주력사업 운영에 변동이 있던 기업은 720개로 11.1% 늘었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은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1만 4922개 기업체다. 전년 대비 조사 대상은 2.6% 증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현대차-신한은행, 금융상품 개발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이고객들을 위한 자동차 금융 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현대차는 김승찬 국내사업본부장과 신한은행 장호식 CIB그룹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금융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적금 상품 운영 및 프로모션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 구매를 원하는 신한은행 고객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적금 상품을 내년 초 선보일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태패널통계

상시 근로자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이 있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아이를 둘 이상 가지는 확률이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결과’를 발표했다. 1983~1995년생을 대상으로 소득·일자리·주거 등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 결혼과 출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한 분석으로, 이번이 처음 공표됐다.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 수록 혼인·출산 비율이 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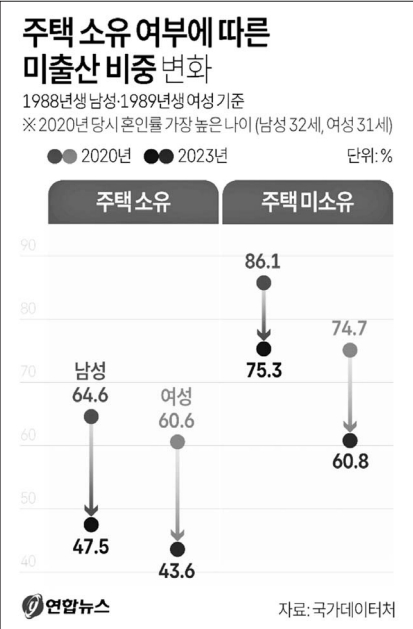
32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결혼한 경우가 1983년생은 42.8%로 거의 절반이었지만 1991년생은 24.3%로 떨어진다.

데이터처는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를 기준으로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추가로 분석했다.

1983년생과 1988년생 남성, 1984년생과 1989년생 여성이 그 대상이다.

주택 소유 여부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88년생 남성 기준으로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주택 소유 집단(26.5%)이 미소유 집단(12.5%)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여성 역시 1989년생의 3년 후 출



산 변화 비율이 주택 소유는 28.1%, 주택 미소유는 18.5%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여부는 둘째, 셋째를 낳는 데 영향을 줬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 는 미사용자 대비 3년 후 다자녀 비율이 더 높았다. 소득 수준, 기업 규모, 주택 소유 여부 등 요건으로 비교해도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가 미사용자보다 높았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다자녀로 이행이 일관되게 더 많아 정책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